

	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 <h2>3.9(수) 10:00부터 보도 가능</h2>	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·구조조정지원팀,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	
책임자	유재훈 기업구조개선과장 (2156-9961)	담당자
	김선문 구조조정지원팀장 (2156-9881)	
	장복섭 신용감독국장 (3145-8370)	
배포일	2016. 3. 9(수)	배포부서
대변인실(2156-9543~48)		총 8매

제 목 : 기업구조조정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

1. '15년도 기업 구조조정 추진상황

- (개별기업) '15년 신용위험평가 결과, 전년 대비 44%(70개사) 증가한 총 229개사를 구조조정 대상(C·D등급)으로 선정하였으며,

* 대기업(54개) : 정기 신용위험평가(4~6월) → 35개사 선정(C 16, D 19)
수시 신용위험평가(11~12월) → 19개사 선정(C 11, D 8)
중소기업(175개) : 정기 신용위험평가(7~10월) → 175개사 선정(C 70, D 105)

- 현재 워크아웃·회생절차 등을 통해 차질없이 구조조정 추진중

* (예) C등급 97개사 중 50개사(대 13, 중소 37)는 현재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을 진행중

- (주채무계열) '15년 주채무계열(41개)에 대한 재무구조평가(4~5월) 결과, 일부 계열과 '재무구조개선약정' 또는 '정보제공약정' 체결*

* 기준점수 미만인 계열과는 자본확충·차입금 축소 등을 위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, 기준점수의 110% 미만인 계열과는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하여 모니터링 강화

- '15.11~12월에는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재무상황 등을 점검하여 취약요인이 있는 업체에 대해

- 주채권은행과의 MOU* 체결 등을 통해 부실요인이 다른 계열사에 전이(Contagion effect)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차단

* 재무목표, 자구계획(자산 매각, 유상증자 등), 영업개선 계획, 합병·사업부매각 등 포함

➡ 채권단 및 업계 주도의 적극적 기업구조조정 추진과 금융당국의 엄격한 여신건전성분류 강화 지도로 '15년말 국내은행의 기업 여신 부실채권(NPL)비율은 2.42%로 전년(2.09%) 대비 0.33%p 상승

* 대기업 워크아웃 채권 등은 구조조정 진행중에는 시장에 매각하기가 적절치 않아 채권금융기관의 부실채권비율 상승요인으로 작용

2. 금년도 추진계획

- ① 대기업 계열 및 소속계열사의 재무건전성 강화 유도
- ② 개별기업에 대한 선제적·상시적 구조조정 지속 추진
- ③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조속한 시행, 선박펀드 설립 등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여건 강화

① 주채무계열 선정 및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 선정

- (계열 평가) 주채권은행이 4월말까지 금년도 주채무계열* 재무구조평가를 완료

* 신용공여액이 '14년말 금융권 총신용공여액의 0.075%(1조 3,581억원) 이상인 계열

- 평가결과에 따라 5월말까지 '재무구조개선약정' 등을 체결하고 매반기 약정 이행상황 점검 등 밀착 모니터링

- (소속기업체 평가)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평가대상을 선정* ('16.4말)하고 5월말까지 재무상황 등 점검

* 채권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평가지침에 따라 '15년말 현재 해당 업체의 신용공여 규모, 부채비율, 이자보상배율, 영업현금흐름 등을 고려하여 선정

- 점검결과 취약요인이 발견된 경우 주채권은행은 MOU 체결 등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성있게 관리

②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대상기업 선정

- (평가일정) (新)「기업구조조정촉진법」은 중소기업도 적용대상으로 확대 → 은행의 업무부담 등을 감안하여 대기업 및 중소기업 평가 시기를 상·하반기로 나누어 실시

* (대기업) 기본평가 및 세부평가 4~6월, 구조조정대상선정 7월초
(중소기업) 기본평가 및 세부평가 7~10월, 구조조정대상선정 11월초

- (평가대상) 그동안 영업활동 현금흐름, 이자보상배율 등을 고려해 평가대상을 선정했으나, 금년에는 완전자본잠식 기업, 취약 업종 기업을 추가하는 등 평가대상을 확대*

* (예) 최근 3년 연속 영업활동현금흐름 부(-) 또는 이자보상배율 1.0 미만, 자산 건전성 '요주의' 이하, 급격한 신용도 악화, 완전자본잠식기업 등

- (평가방법) 재무위험과 현금흐름 등 재무지표뿐만 아니라 산업 위험, 영업위험, 경영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

* 세부평가지 경기변동 민감도, 성장전망 등 업계상황을 반영하고, 평가대상 기업으로부터 소명·자구계획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평가할 예정

③ 기촉법 제정 및 시행령·감독규정 입법 계획

- 기촉법 제정안이 3.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, 3월 중순 공포·발효 예정
- 시행령·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은 4월말 입법 완료를 목표로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
 - 하위법령 공백(3월 중순~4월말)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「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」 효력기간을 연장(3월초)했으며,
 - 차질없는 법 시행 여건 조성을 위해 3월말 이전에 채권금융기관 대상으로 기촉법 및 하위법령(안)에 대한 설명회 개최 예정

④ 선박펀드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

- TF 회의(16.1~2월)를 통하여 기관별* 투자금액, 펀드 운영 방식, 실무지원반 구성 등 논의를 마무리
- * 한국산업은행, 한국수출입은행, 한국자산관리공사, 산은캐피탈, 무역보험공사 등
- 이에 따라, 3월 중순경 참여기관간 양해각서(MOU) 체결 예정

➡ 주채무제열평가, 개별기업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한 상시적·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고,
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을 활용한 업종별 구조조정도 지원하여, 우리경제의 기업부채 리스크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

참고

기업구조조정 추진 관련 Q&A

1. 기업구조조정 콘트를 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?

- ☐ 개별기업의 재무현황·영업전망·업황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 및 그 기업과 오랜 기간 거래한 채권은행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
- 기본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은 채권단과 기업이 주도할 필요
- ☐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며,
 - 개별 기업이나 채권단 눈높이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업종별 구조조정 방향을 「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」 등을 통해 제시
 - 정부의 콘트롤 타워 기능이 개별기업 구조조정을 탑다운(top-down)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면,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음
- 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정부는 기촉법 재입법 등을 통해 제도를 마련하였으며,
 - 향후에도 취약산업에 대한 산업정책적 판단을 채권단에 제시하는 등 구조조정 관련 정부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
 - 아울러, 상시 신용위험평가(정기·수시)를 통해 채권단과 기업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련 여건을 조성하고 관리해 나갈 것임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c.go.kr>



많게 들겠습니다
바르게 알려겠습니다

2. 총선을 의식해서 기업구조조정이 지연중이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?

- ☐ 기업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해당기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채권은행의 주도로 매년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실시중
 - 지난해말 주채무계열 소속기업,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, 현재까지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워크아웃·회생절차 등을 추진중
 - 금년에도 전년도 결산실적이 확정되는 3월 이후, 주채무계열 및 소속 기업, 대기업에 대해 6월까지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할 예정
- ➔ 올해는 세계경제 침체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, 신용위험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예년보다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 예정

3. 조선사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?

- ☐ 조선사 구조조정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중
 - ① 대우조선은 '15년도 영업손실이 사상최대인 5.5조원이라고 발표했지만, 이는 작년 실사결과에서 이미 예상되었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
 - 현재 실사결과에 따라 신규자금 지원, 자본확충, 인력 구조조정 등의 정상화방안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음

- ② STX조선도 '15년에 실사를 실시한 뒤 구조조정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고, 동 방안에 따라 다운사이징 등 예정된 구조조정을 진행중임
- ③ 성동조선은 삼성중공업과 경영협력을 체결하여, 영업 역량 강화, 인력 감축 등을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을 동시 추진중
- ④ SPP조선은 조선소 및 공장 매각을 추진중

- ☐ 기업 구조조정은 그 특성상 정상화방안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,
 - 자산매각, 생산성 향상, 인적 쇄신 등의 실행은 물론 영업 실적에 반영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며,
 - 산업동향 등 외부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욱 짧은 시간 내에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 어려움
- ☐ 가시적 성과가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, 조선업 구조조정이 계획대로 착실히 진행중인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

4. 기업구조조정이 부진해서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?

- ☐ 작년도 은행 부실채권 비율 상승의 원인은 한계기업 증가 때문이 아니라, 엄격한 신용위험평가 등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(C·D등급)이 증가하였기 때문임
 -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은행이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대기업 부실채권을 매각하기도 어려우므로 부실채권비율 증가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음

□ 따라서, 은행 부실채권 비율이 상승한 것은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는 시그널로 인식할 필요

○ 채권은행은 거래 기업을 구조조정 대상(C·D 등급)으로 분류시 부실채권 증가와 충당금 추가 적립도 감수해야 하므로 가급적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,

○ 은행의 기업부실채권 비율 증가는 기업부채가 건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

5. 지난 연말 정부 발표와는 달리 해운업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것은 아닌지?

□ 양대 국적선사는 주채권은행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각사의 상황에 맞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

○ 현대상선은 22일 자산매각 및 채무조정안을 포함한 전방위적 경영정상화방안을 발표하고, 용선료 협상 등 후속조치 이행 중

- 비협약 채권자에 대한 채무재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채권단은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임

○ 한진해운은 회계법인(삼일)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중이며, 확정되는대로 채권금융기관 협의하에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

□ 한편,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'15.12월 발표한 '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'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3월중 선박신조 프로그램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임

6. 선박편드와 관련해서 혈세의 상당부분이 부실 해운사 지원에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?

□ 금번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은 총 12억불 규모로 조성되며,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후순위편드(30%)는 3억 6천만불 수준

* 선순위대출(일반금융기관 60%), 후순위편드(정책금융기관 30%, 해운사 10%)

□ 동 프로그램은 해운사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며, 선박편드가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

○ 자체 자구노력으로 일정한 재무상태(부채비율 400%)를 달성한 해운사에 한해 BBC방식으로 선박을 빌려주는 것으로서

○ 해운사는 용선 계약에 따라 용선료를 지불하는 방식임

7. 유암코를 통한 시장주도의 구조조정 추진이 다소 부진한 것이 아닌지?

□ 현재 유암코는 설립 초기 단계로서 한 건 씩 차근차근 투자하여 새로운 구조조정 시스템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가는 과정중이라 생각함

○ 기존 2개社에 대한 투자방식 이외에 공동GP 참여, 워크아웃 초기 단계 투자 등 새로운 투자 형태를 모색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

* 1개社 인수완료(오리엔탈정공), 1개社 실사중(영광스텐)

□ 향후 다양한 투자사례와 성공사례를 축적하여 민간 주도 구조조정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